

'광주·전남 시국회의' 촛불 열기 고심

6·10 정점 참가자 줄어... 의제 확대·명칭 변경 놓고 민심 예의주시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끌어 온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 촛불집회를 이끄는 국민대책회의가 지난주 투쟁의제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일 이후 정권퇴진운동까지 예고한 이후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가 줄어드는 등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투쟁의제 확대와 단체 명칭변경을 놓고 지역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엔 4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

다. 일주일 전 2만~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것에 비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석자도 이달 초 평일 300~500명, 주말 2천~3천명에 이르던 것이, 고 이병렬씨 노제가 열린 14일 1천500여명, 16일에는 100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이런 현상이 촛불집회의 의제를 미국산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대운하, 교육, 공영방송 등 5대 의제로 확산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타났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와 건설기계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촛불집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노동계 파업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촛불 열기가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국회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촛불집회 의제를 확대한 서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조직 명칭변경을 논의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에서도 같은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비상시국회의의 한 관계자는 명칭변

경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차질 촛불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참여 저조와 보수진영의 '역풍' 등이 예상된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상시국회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및 대운하 추진반대 등을 외치면서 쇠고기에 한정된 시국회의 명칭을 그대로 가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각 시도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명칭을 통일하는 방향을 논의해 볼 계획이다"고 고집의견을 밝혔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17일 광주시 북구 유동 광주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서부지역(광주·전남·북, 제주도) 회원대회'에 참가한 회원 300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이라고 쓰인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명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사건 재정신청 12배 급증

올들어 189건이나

올해부터 모든 형사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1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에 비해 12.6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연간 신청 건수 19건에 비해서도 1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

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자폭행 등 공무원범죄에 대해 서민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새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재정신청 급증에 따라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덩달아 늘고 있다. 법원은 올해 신청된 189건 중 동업을 발미로 투자금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서모씨의 사기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1년에 1~2건에 불과했던 공소제기 결정도 재정신청이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적 통제장치로,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잇따르는 현상은 이 같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이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해 검사가 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최권일기자 cki@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간소화

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

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후에 낼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 이후 군에 입대한 학생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까지 이자 납부 유예 혜택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정부의 학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도 내년 초 출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다. /연필뉴스

시끄러운 하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으며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0~24℃
전남	흐리고 비	19~22℃
전북	흐리고 비	19~22℃
충청	흐리고 비	19~21℃
경상	흐리고 비	20~24℃
강원	흐리고 비	20~22℃
제주	흐리고 비	20~22℃
서울	흐리고 비	20~22℃
부산	흐리고 비	19~23℃
대구	흐리고 비	19~23℃
인천	흐리고 비	19~23℃
대전	흐리고 비	18~23℃
울릉도	흐리고 비	20~23℃
독도	흐리고 비	20~24℃
제주	흐리고 비	19~24℃
해남	흐리고 비	16~1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2:04 썰물 < 07:27
목포 밀물 < 13:41 썰물 < 19:04
여수 밀물 < 08:30 썰물 < 02:54
여수 밀물 < 21:21 썰물 < 14:31

▲해돋이 05:18 ▲해질 19:49 ▲달돋이 19:46 ▲달질 04:22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7	20/29	20/27	20/25	20/28	19/29

안수한 돈 착복 경찰 직무유기죄만 유죄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정에서 안수한 돈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직무유기 혐의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7일 오락실 단속 중 안수한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거나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8) 경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증거인멸)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함께 김 경사가 받았던 절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전남 6개교 교장공모제 추가 실시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제3차 실시 학교가 결정됐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광주 양산초·임곡초와 전남의 강진계산초·고흥점암중앙중·완도군외중·진도고성중 등 전국 76개교를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임곡초와 진도고성중은 내부형, 광주 양산초, 강진계산초, 고흥점암중앙중, 완도군외중은 초빙형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중 56곳은 초빙형, 19곳은 내부형, 1곳은 개방형을 각각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내부형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교원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개방형은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공모와 심사를 거쳐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다. /정성필기자 camus@

이승만·박정희 前 대통령 차량 문화재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이용하던 의전 차량과 지프가 문화재로 등극한다. 국내에서 가장 차령이 오래된 소방차 또한 문화재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문화재청(청장 이경우)은 전직 대통령 의전차와 소방차를 비롯한 차량 유물 8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등록을 앞둔 '예비 문화재'는 전쟁기념관 소장 이승만 대통령 의전용 세단(사진)과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소장 박정희 대통령 업무용 지프, 육군박물관 소장 박정희 대통령 의전용 세단, 개인 소장 상주이용소방대 소방차 등이다.



이 전 대통령 의전용 세단은 미국 GM이 1956년 제작한 캐딜락으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이며 국내 최초의 방탄차량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업무용 지프는 1965년 미국 카이저사 제품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고속도로 건설현장 시찰용으로 주로 사용했다. /연필뉴스

ANYCHE CHAIR

Anyche
최고의 인재를 위한 최고의 의자 전문 생산업체 - 유망기업
100% 국내 생산, 100% 고객 만족
www.anyche.com

자연 사랑!! 살고싶다

오랜기대킹의 행복!!

'달랑수복'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시원 : (주) 로베스타이브
시공 : (주) 지엔에이
www.rovesta.com
☎ 02-251-4000 / 061) 383-2346